

전교조 전북·교육청 실무교섭 돌입

행정업무 경감·위원회 등 구성시 노동조합 추천권 보장 등 쟁점조항 논의

전교조 전북지부는 20일 브리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섭요구 9개월 만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첫 실무교섭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에 열리는 실무교섭에서는 행정업무 경감,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시 노동조합의 추천권 보장,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유지 등이 쟁점사항으로 다뤄질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 자리에서 “지난 3월 전북교육청은 고 3월 모의고사를 강행하면서 단협을 위반했다”면서 “당일이 6월 17일, 쟁점조항 168개를 일방적으로 단로 통보했다”

고 주장했다.

특히 “전북을 제외한 16개 모든 시도 교육청은 국장 또는 과장이 교섭에 참여하지만, 유일하게 전북만 팀장이 나온다”며 “이것은 명백히 노동조합의 위상을 존중하지 않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권지킴이’로서 단체협약을 삭제·수정하겠다는 조항을 지키기 위해 조합원 뿐만 아니라, 2만 교사와 함께할 것”이라며 “필요시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실무교섭을 위해 64일째 진행중인 철야 농

성을 잠시 중단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육청은 2023년 12월 26일 전교조 단체교섭 요구는 교육청 요구 수용이 아니라면서, 2023년 11월 6일 전교조가 최종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팀장급 대표위원으로 실무교섭을 우선 시작하고, 합의안에 대해 과장 수기서명 후 노조측에 전달하기로 했으면서 구두 합의 내용을 제시했다.

또한 실무교섭 2~3회 진행 후 미합의 안건에 대해서는 과장급이 참여하는 실무교섭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교육청,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선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일 5층 회의실에서 제11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별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를 통해 총 5건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최우수 사례는 교원인사과 김은선, 우수사례는 노사협력과 정희재, 장려사례는 군산학생교육문화관 김은정, 교육협력과 이혜진, 예산과 임인옥 등이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교육감 표창과 인신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홍열 감사관은 “공무원들의 책임회피성 부작위, 태만 등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라면서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을 계기로 적극행정이 일상적인 공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국립국제교육원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26일까지 7박8일 일정으로 전주대학교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EPIK) 사전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국립국제교육원 제공)

국립국제교육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사전연수

내달부터 근무하는 원어민 450여명 입국... 7박8일 연수 후 학교로

국립국제교육원(원장 한상선)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26일까지 7박8일 일정으로 전주대학교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EPIK) 사전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450여 명이 참여한다.

20일 국립국제교육원에 따르면 EPIK

대, 전주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의 축하 공연과 태권도 배우기, 전주한옥마을 체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상선 원장은 “신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학생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며 “이를 통해 영어 교육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대, 전주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의 축하 공연과 태권도 배우기, 전주한옥마을 체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상선 원장은 “신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학생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며 “이를 통해 영어 교육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내 초·중·고교에 사이버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지원

전북자치도교육청, 퇴직교원·학교전담경찰관 등 20명으로 구성... 2학기부터 51개교서 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초·중·고교에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에 따라 청소년들이 사이버폭력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최근 추세에 따라 사이버폭력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리고, 상호 존중의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퇴직교원, 학교전담경찰관, 전문강사 등 20명으로 사이버폭력예방교육 인력풀을 구성했다.

2학기부터 초·중·고 51개교를 대상으로 사이버 언어폭력, 성폭력, 명예훼손, 다편리 등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사이버성범죄·도박·명예훼손 등 사이버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사이버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지원원을 통해 학생들이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건강한 사이버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RISE 사업 대비... 전주비전대, 교직원 워크숍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20일 비전관 4층 대강당에서 '2024년 하계 교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주비전대학교가 20일 비전관 4층 대강당에서 '2024년 하계 교직원 워크숍'을 연 가운데, 우병훈 총장과 교직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날 워크숍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인 RISE사업에 대비하고, 또 급변하는 환경에서 대학의 지속 가능한 전략 및 과제 도출 등 학력인구 감소에 따른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대학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 '고등교육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RISE'를 주제로 교육부 고영훈 교육개혁지원관의 특강 △ 산·학 협력 △ 지역인재 육성 정책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과 대학 간의 협업 및 시너지 제고를 통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도모를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2부에서는 대학의 지속 가능한 전략으로 △ 학사구조개편 △ 대학교육 역

신을 위한 교수학습 역량강화 △ 학생을 위한 입시방안 등 대학 구성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우병훈 총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대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전략을 고민하고, 이를 실천

에 옮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학의 모든 구성원과 지역 사회가 함께 참여해 대학의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암모니아 가스센서, 농축산 현장서 활용 길 열리나

전북대 김기현 교수·김현규 박사과정생 실리온 반도체 공정기술 활용, 대량생산 가능 고민감도 암모니아 가스센서 원천기술 개발 소형화·저전력 구동... 암모니아 1분 이내 감지



김기현 교수



김현규 박사과정생

전북대학교 김기현 교수와 김현규 박사과정생이 실리온 반도체 공정기술을 활용해 저가로 대량생산이 가능한 암모니아 가스센서 원천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계기·계측 분야 상위 1% 저널인 'Sensors and Actuators B-Chemical'에 게재됐다.

이에 따르면 암모니아(NH3) 가스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센서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전기화학식 센서는 생산 비용이 비싸고 높은 전력을 소모한다. 또 부피가 너무 커서 다양한 장소에서 모니터링용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연구팀은 기존 센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실리온 반도체 기반 고민감도 암모니아 센서 기술을 개발했다. 그러나 실리온 반도체 기반 저항 변화식 가스 센서 역시 경제성은 우수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검출 민감도와 검출 선택성의 한계로 상용화에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팀은 반도체 산업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pn접합 다이오드 구조에 마이크로 구조를 접목, 카르복실화된 단일벽 탄소나노튜브(SWCNT-COOH)를 융합해 암모니아 검출 민감도와 검출 선택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습도 변화에도 안정적인 출력률 보이는 센서를 개발한 것.

이 기술은 실리온 반도체 공정 기술을 활용해 대량 생산이 쉽고, 소형화 및 저전력 구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소형 센서로 개발할 수 있으며 암모니아를 1분 이내에 감지할 수 있어 농축산 현장에서 검출 센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를 주도한 김기현 교수는 “이번에 개발된 센서 기술은 실리온 반도체 기술을 활용해 제작할 수 있어 상용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농축산 분야뿐만 아니라 환경 모니터링과 산업 안전 분야에서도 활용 가치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통장류 DIY 키트, 전통 방식과 비교

맛·향에서 약간의 차이 확인

전북대 김예원 석사과정생, 한국식품과학회 우수논문상



김예원 석사과정생

전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김예원 석사과정생이 전통 장류를 만드는 과정을 단순화해 플라스틱 용기에 DIY 키트로 제조된 간장과 전통 방식으로 향이에서 제조된 간장의 품질 특성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이채로운 연구를 발표해 학계 주목을 끌고 있다.

이에 따르면 김 석사과정생은 이번 연구 성과를 최근 열린 한국식품과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해 대학원생 우수논문 구두발표상을 수상했다. 이 연구는 식품영양학과 감각과학연구소(연구책임 김미나경민)이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진행한 것이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일어난 많은 변화 가운데 하나인 밀키트 제품을 장류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된 연구로, 지역의 장류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이뤄졌다.

연구 결과 향이에서 발효된 간장과 DIY 키트에 포함된 플라스틱 용기에서 발효된 간장의 이화학적, 혹은 향산화성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맛과 향에서 약간의 차이를 확인했다.

김예원 학생은 “코로나19로 많은 시간 집에서 보내면서 다양한 밀키트 제품을 접하며 전통장류도 DIY키트로 집에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고, 실제 전통 장류와 맛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며 “이번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준 김미나경민 교수님과 감각과학연구소 선·후배들과 이번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그동안의 노고·업적 잊지 않고 기억할 것”

우석대, 교원 정년퇴임식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20일 문화관 2층 아트홀에서 교원 정년퇴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노준 총장은 “스승이자 학자로서의 소임을 훌륭하게 마친 교수님들께 감사와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년퇴임을 맞는 교수님들의 노고와 업적을 오래도록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이날 행사에는 서창훈 우석학원 이사장과 박노준 총장, 교무위원, 교직원, 재학생, 퇴임교원 가족 등이 참석했다.

정년퇴임 교원은 이철원(체육학과)·류지영(교양대학)·이흥기(에너지전기공학과)·조형찬(재활상담학과)·양성민(교양대학)·박덕진(교양대학)·송재훈(경영학부)·김영혜(미디어영상학과) 교수 등 모두